

김환기 미술품 경매가 기록 또 썼다

서울옥션 홍콩 경매서

‘붉은색 전면점화’ 85억원 낙찰
경매가 1~6위 모두 김환기 작품

추상미술 선구자인 신안출신 김환기(1913-1974)가 1972년 그린 붉은색 전면점화가 낙찰가 85억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번 경매로 이종섭 ‘소’에 잠깐 한자리를 내준 국내 미술품 경매가 1~6위가 다시 김환기 작품으로 채워지게 됐으며 김환기의 작품은 전체 10위 안에 모두 8점이 자리하게 됐다.

‘3-II-72 #220’은 27일 홍콩 완차이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옥션 제25회 홍콩세일에서 85억2천996만 원(6200만 홍콩달러)에 새 주인을 찾았다. 작품은 77억 원(5천600만 홍콩달러)으로 경매를 출발했으며, 현장에 있던 한 여성 고객이 낙찰받았다. 국내외 미술계 관심이 쏠린 낙찰가 100억 원 돌파는 무산됐다. 하지만 18%인 구매 수수료(약 15억 원)를 더하면 사실상 100억 원 수준이라는 게 서울옥션 설명이다.

서울옥션 이육경 대표는 “크기와 색감, 조형성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라며 “한국 미술품 경매 거래가가 약 100억 원대를 기록함으로써 한국 미술 전반에 대한 국내외 기대감이 한층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4월 케이옥션 서울경매에서 김환기 푸른색 전면점화 ‘고요 5-IV-73 #310’(1973)이 기록한 65억5000만 원이었다.

‘3-II-72 #220’은 김환기 작품 세계가 절정에 이르렀다 평가받는 미국 뉴욕 시절의 전면점화 중 하나다. 세로 254cm, 가로 202cm 대형 면포 위에서 맑은 진홍빛 점들이 엮이려는 사선 방향으로 패턴을 이룬다. 상단에는 푸른색 점들이 작은 삼각형을 이루며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의 경매 시작부터 직전 최고가보다 12억 원 높았음에도 낙찰된 것은 추상미술 선구자라는 작가의 미술사적 지위와 희소한 색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환기 전면점화 대다수는 푸른 색조로, 지금까지 파악된 붉은색 전면점화는 낙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상미술 선구자인 김환기(1913-1974)가 1972년 그린 붉은색 전면점화가 낙찰가 85억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3-II-72 #220’은 27일 홍콩 완차이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옥션 제25회 홍콩세일에서 85억2996만 원(6200만 홍콩달러)에 최종 낙찰됐다. /연합뉴스

김환기 일기에도 ‘3-II-72 #220’ 작업 과정이 꼼꼼히 기록됐다. 작가는 1972년 1월 30일 낮에 목재를 사와 틀을 만들었고, 2월 1일 밤 틀에 면포를 매어 그림을 그릴 준비를 마쳤다. 작가는 이를 뒤 작업을 시작하면서 “진종일 비. 100×80시작. #220 Rose Matar”라고 썼다. ‘Rose Matar’는 유화 물감 중 로즈매더 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은 같은 달 9일 마무리됐다. 작품 뒤쪽에는 ‘3-II-72 #220’과 ‘whanki New york’이라고 적혀 있다.

김환기는 이번 경매를 통해 13개월 만에 경매가 자체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2015년 10월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47억2000만 원에 팔린 푸른색 전면점화 ‘19-VII-71 #209’를 시작으로 김환기 작품은 지난 3년간 6차례 연속 최고가 기록을 썼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47억 원에 낙찰된 이종섭의 ‘소’는 국내 미술품 경매가에서 7위를, 박수근의 ‘빨래터’는 45억 2000만 원으로 9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근현대 작가 김환기 작품
한국미술품 최고가 경신
국내 미술품 경매가 상위 10

1위	3-II-72 #220	붉은색 전면점화, 1972년 작	85억 2천996만 원
2위	김환기 고요 5-N-73 #310 (1973)	65억 5천만 원 (2017년 4월)	
3위	김환기 12-V-70 #172 (1970)	63억 3천만 원 (2016년 11월)	
4위	김환기 무제 27-VI-72 #228 (1972)	54억 (2016년 6월)	
5위	김환기 무제 (1970)	48억 7천만 원 (2016년 4월)	
6위	김환기 19-VI-71 #209 (1971)	47억 2천만 원 (2015년 10월)	
7위	이종섭 소	47억 (2018년 3월)	
8위	김환기 무제 3-V-71 #203 (1971)	45억 6천만 원 (2016년 5월)	
9위	박수근 빨래터 (1961)	45억 2천만 원 (2007년 5월)	
10위	김환기 향아리화 시 (1964)	40억 (2018년 3월)	

※ 낙찰시점 환율 기준·구매 수수료 불포함

‘파랑새가 떠나간 자리’...김평준 드로잉전



김평준 작 '사람사는 세상 II'

30일~6월 18일 은암미술관

그의 드로잉 작품에 등장하는 건 다양한 인물 군상이다. 대부분 눈코입이 없는 그들은 깊은 고뇌에 빠진 듯도 하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도 하다. 홀로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서로 몸을 기대고, 어깨를 견고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거기에 말과 물고기 등 인간과 공존하는 다양한 동물도 모습을 드러낸다.

김평준 작가 드로잉 초대전이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파랑새가 떠나간 자리’다.

김 작가는 붓을 잡은 50여년 동안 끊임없이 드로잉 작업을 진행해왔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 김 작가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담다보니 드로잉으로 인물군상을 많이 그리게 됐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군상을 즐겨 그리는 김 작가는 사람들의 거침없는, 활발한 동작에 주목하고 그 속에 인간의 본질을 담는다. 세부적인 얼굴 표정을 생략

한 덕에 그 움직임은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다양한 재료 사용도 눈에 띈다. 간결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느낌을 전해주는 먹과 함께 염색에 사용하는 쪽을 혼합해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아크릴물감, 크레용, 색연필, 연필, 나무젓가락, 붓으로 종이, 풀판지 등에 드로잉 작업을 한다. 색감은 황색, 녹색, 적색이 주조를 이루며 먹빛은 깊은 울림을 준다.

전시회 제목으로도 사용된 작품 ‘파랑새가 떠나간 자리’는 평복항을 찾았을 때 느낌 감정을 파랑새를 날려보내는 이와, 그 새를 잡으려 손을 내미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사람사는 세상’, ‘역사의 문’ 연작도 만날 수 있다.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김 작가는 그림의 본고장 파리에 10여년간 머물며 작업 활동을 했다. 이후 1996년 귀국,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1년부터 광주에 정착해 묵묵히 작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막식은 30일 오후 5시다. 문의 062-231-529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서식품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4개 부문 공모

내달 8일 조선대서 ‘멘토링 클래스’ 나희덕·강희진 주제강연

동서식품(주)이 10월 1일까지 제14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공모를 한다.

동서식품은 1989년 제1회 ‘동서커피문학상’을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공모전을 개최해 실력 있는 여성 작가를 발굴해왔다. 지난 2012년(11회)부터는 공식 명칭을 ‘동서커피문학상’에서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으로 변경해 문학적 정통성을 강화했다.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자유로운 주제에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동화, 동시) 등 총 4개 부문으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동서문학상 홈페이지(bookclub.dongsuh.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22일 동서문학상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에게 주어지는 1000 만원을 포함, 총 484명의 수상자에게 총 79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동서식품은 응모기간 동안 스타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멘토링 클래스’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멘토링 클래스 2회차는 오는 6월 8일(오전 10시30분) 조선대학교 인석홀(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희덕과 강희진 시인을 초청해 ‘당신의 삶도 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 및 각종 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희망자는 동서문학상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71-037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송창초대전 연계 성완경 강연

내일 본관 세미나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현재 본관 제5·6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중진작가 초대 송창전 ‘66년-분단서정’ (6월 3일까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30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세미나실.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이는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성완경(사진) 명예 교수로 강연 주제는 ‘분단 미술의 사례들과 생각해 볼 것 가지 문제들’이다. 성 교수는 40여 년간 ‘분단’이라는 한 가지 주제의식으로 작업에 몰두해 온 송창 화백의 지난 예술 여정을 여러 분단 미술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번 강연을 통해 조국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자했던 분단 미술 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 흐름이 민중미술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성 교수는 ‘현실과 발안’ 창립 동인이자 80년대 민중미술운동의 1세대 선도자로 제 4회 광주비엔날레(2002) 예술감독, 파리비엔날레 국제운영위원회 한국대표를 역임한 국내 대표 미술평론가 중 한명이다. 문의 062-613-714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맛집**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팔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